

조선정사 2권

隋書

당 태종 3년~10년(629~636) 사이에 위징 등이 편찬한 수나라 3대 38년(581~618)의 正史로서 帝紀 5, 列傳 50, 志 30 등 총 85卷으로 구성

동이열전: 고려, 백제, 신라, 말갈, 류구, 왜국의 순으로 편목 구성

고(구)려

북조의 정사인 魏書나 周書와 마찬가지로 出自(고구려의 선조는 부여), 시조신화(주몽), 전대의 世系 및 관계사 그리고 지리, 제도, 생활상 등의 순으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당대의 고구려와의 관계 기사 수록

후반부의 고구려와의 관계기사는 대체로 고구려 침공에 관한 기사가 중심

<관계사>

장수왕이 후위에 사신 파견

평원왕(湯)이 북주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고 북주의 무제는 평원왕을 上開府 遼東郡公 遼東王(고구려가 실제 중국인의 인식으로 遼河 이북인 요동지방을 지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수

開皇(수문제 양견의 연호) 초기(581~600)에는 入貢하는 사신이 자주 있었으나 수나라가 陣을 평정한 후 평원왕이 군사훈련과 곡식을 적축하여 방어계획 수립

수문제에게 사신을 파견, 대장군으로 올려주고 고구려왕으로 봉하였다는 점. 이후 해마다 사신과 조공 지속

597년 수문제가 평원왕에게 보낸 璽書: 천명과 교화 언급, 평원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며 藩附라고 칭하지만 誠節을 다하지 않았으며 불신감이 젖어 사신을 보낼 때마다 소식 밀탐하였다고 힐난, 변신의 예절을 지키고 조정의 典禮을 받들기 교화에 힘쓰라고 강조, 왕을 내쫓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

이에 대해 평원왕은 表文을 바쳐 사죄

영양왕(元)이 왕위에 오르자 고조는 사신을 파견하여 上開府儀同三司로 제수하고 遼東郡公 세습, 영양왕이 표문을 올려 왕으로 책봉을 요청하였고 고조가 왕으로 책봉

영양왕이 말갈의 기병을 이끌고 요서에 침입, 이에 대해 군사동원 고구려 침공 및 조서를 통해 爵位 삭탈

영양왕이 표문에서 '요동 糞土의 臣 元 云云'하였다고 기술

수양제의 고구려 침입 기술: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하였다는 점, 영양왕을 불러들여 入朝토록 하였으나 오지 않았다는 사실 등

兵器는 대략 중국과 같다고 기술

백제

전반부는 백제사회에 대한 기록, 후반부는 수와의 외교관계 기사가 대부분

백제 국내에 고구려, 신라, 왜, 중국인 등이 섞여 있었다는 기술: 백제의 개방적이고 국제적 성격

선대는 고(구)려에서 유래

중원과의 관계사

백제 건국 이후 십여대 동안 대대로 중국의 신하노릇을 하였다고 기술

開皇 초기(581~600) 위덕왕(瑠)이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쳐 위덕왕을 上開府 借方郡公 백제왕으로 삼았다

陣을 평정하자 위덕왕은 표문을 올려 축하, 고조는 칙서를 통해 해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

開皇 18년 요동정벌시 위덕왕은 표문을 올려 수나라 군대의 선도가 될 것을 요청 조서를 통해 고구려가 職貢을 닦지 않고 人臣의 예를 갖추지 않아 國號를 改하였다 고 언급

고구려가 이 사실을 알고 백제의 국경 침략

大業 3년(607) 무왕(璋)이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 國號 요청, 수양제가 허락하여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도록 하였으나 무왕은 고구려와 通和하면서 중국을 엿본 것 수나라 군대를 돕는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양단책을 쓴 것

大業 10년(614)에 사신을 보내 조공, 그 뒤 천하가 이지러워져 使命 斷絶

신라

위나라 장수 모구검의 침입 때 피난해 간 고구려인들이 수립

중국, 고구려, 백제의 족속들이 뒤섞여 있다고 기술

開皇 14년(594) 진평왕은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고 고조는 진평왕을 上開府 樂浪郡公 신라왕으로 삼았다고 기술

大業(605~616) 이래 매년 조공을 바쳤다고 기술

舊唐書

五代 後晉의 出帝 開運 2년(945)에 劉昫 등 찬수한 당나라 290년간(618~907)의 역사를 서술한 중국의 정사, 本紀 20, 志 30, 列傳 150 등 총 200권, 京名은 당서이나 송대의 구양수 등이 편찬한 新唐書가 나온 후부터 구당서로 호칭

동이열전

고(구)려, 백제, 신라, 倭國, 日本傳으로 구분, 각국의 위치, 관직, 생활상 등 대한 설명적인 상태 기술

고(구)려

부여의 別種

武德 2년(619) 영류왕 2년 사신을 보내 朝覲

무덕 4년(621) 사신을 보내 조공

당고조는 무덕 5년(622) 영류왕에게 글을 내려 “藩臣에 삼며 正朔을 받아 가고자 하여 멀리서 職貢에 순종하였다”고 표현

무덕 7년(624) 고조는 沈叔安을 보내 영류왕을 보내 遼東郡公 고리상에 책봉
고조가 侍臣에게 “고구려가 수에 稱臣하였으나 양제에게 거역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신하이겠는가...무엇 때문에 반드시 칭신하도록 하여 스스로 존대함을 지키하여야 되겠는가”라고 언급, 이에 대해 侍臣들이 칭신하지 않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중국에 있어 이적이라는 태양에 있어서의 列星과 같으므로 이치상 尊을 격하시켜 藩國과 같게 할 수는 없다” 이에 철회

무덕 9년(626) 신라와 백제가 사신을 보내 영류왕이 길을 막아 입조할 수 없다고 언급, 조서를 내려 화해시켰고 영류왕은 표문을 올려 사죄하면서 신라의 사신과 대좌시켜 회맹할 것을 요청

貞觀 14년(640)이 태자를 보내와 조근, 태종이 극진히 치하

영류왕을 살해하고 보장왕 옹립, 貞觀 17년 보장왕(靺)을 책봉하여 遼東郡公 고리왕으로 삼았으며 璽書를 보내 고구려를 설득하여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언급

태종이 侍臣들에게 연개소문이 군주를 시해하고 대신을 다 죽였으며 用刑이 함정과 같아 백성을 움직이는데로 죽이므로 무너뜨리기가 매우 쉬울 것이라고 언급

貞觀 19년(645) 수륙 양군과 태종이 친히 군을 거느리고 고구려 침공

白崖城 성주 孫伐音이 항복을 청한 내용 기술

안시성 전투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연개소문의 사망과 연남생의 막리지 직위 승계 및 동생 남건, 남산과의 분화 기술

백제

부여의 別種

武德 4년(621) 왕 扶餘璋(무왕)이 사신을 보내 果下馬를 바침

武德 7년(624) 대신을 보내 表文을 올리고 조공, 고조는 가상히 여기 사신을 보내 帶方郡王 백제왕으로 책봉, 해마다 사신을 보내 조공, 고구려가 길을 막고 중국과의 왕래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므로 詔書를 내려 朱子奢를 보내 화해시킴(삼국사기와 비교,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와 신라가 상호 항쟁하면서 대수, 대당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던 시기)

정관

貞觀 원년(627, 무왕28) 태종이 璽書를 내려 백제왕에게 “命을 받아 천하의 군림하고부터 왕도를 넓히고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등, 신라왕 김진평(진평왕)은 짐의 藩臣이며 왕의 鄰國인데 무력만 믿어 잔인한 행위를 예사로 하니 기대어 어긋날, 왕의 조카, 고구려, 신라의 使人을 대하여 通和할 것을 命”, 이에 무왕이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사죄, 표면상으로는 명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실세에 있어서도 예나 마찬가지로 원수 사이

貞觀 11년(637, 무왕 38) 사신을 보내 朝會하고 鐵甲 등을 조공, 태종은 명차 3천段

과 錦袍 등을 하사

貞觀 15년(641, 의자왕 1년) 무왕이 죽어 아들 의자가 사신을 보내 조문을 올려 슬픔을 알리자, 태종은 素服차림으로 뜻을 하고 광록대부로 추증하고 博物 2백段 하사, 사신을 보내 의자를 柱國(중2품)으로 冊命하고 特方郡王 백제왕에 봉함

貞觀 16년(642, 의자왕 2년) 의자가 군사를 일으켜 신라 40여성을 빼앗고 고구려와 화친을 맺어 통호하고 당항성을 탈취하여 신라의 入朝길 방해, 신라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니 태종은 相里玄奘에게 조서를 보내 賜福으로 兩路을 설득

태종이 고구려를 징벌하자 백제는 두마음을 품고 기회를 틈타 신라의 10성 수격

貞觀 22년(648, 의자왕8년) 십여성을 빼앗고 수년동안 조공 단절

고종이 승계하자 永徽2년(651, 의자왕11년) 사신을 보내 조공, 고종은 의자왕에게 餽書를 통해 3국의 분쟁을 언급하면서 “지난 해 왕의 사신과 고구려, 신라 등의 사신이 함께 입조하였을 때 서로의 원한을 풀고 다시 우호를 돈독히 하도록 명하였다”, “신라의 사신 김법민은 백제에게 詔勅을 내려 침략한 성을 돌려주기 하였으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싸움으로 되찾고 옛땅만 되찾으면 바로 철퇴하겠다고 하여 윤택하였다”, “짐은 만국의 군주인데 이쪽 위태로운 藩國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은 빼앗은 신라의 성을 모두 돌려주시오”, “왕이 나의 차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짐은 법민이 청하는 대로 왕과 싸우게 놓아 둘 것이요. 또한 고구려와 약속하여 멀리서 서로 돕지 못하게 할 것이요”

永徽6년(655, 의자왕15년) 신라왕 김춘추가 表文올려 백제가 고구려, 갈갈과 함께 北界를 침공하여 30여성 함락

顯慶5년(660, 의자왕 20년) 소정방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공격, 5도독부 설치
백제의 저항운동 기술: 백제의 승 道琛과 舊將 복신이 주류성을 거점으로 반란, 왜국에 사신을 보내 故王子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옹립

신라

중국과의 양국관계이 교섭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중화사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술

신라국은 변한의 후에

왕 김진평은 수문제 때 上開府 樂浪郡公 신라왕으로 除授

武德 4년(621, 진평왕43) 사신을 보내 조공, 고조는 表文素를 보내 餽書 및 그림병풍과 비단 3백段을 하사, 이로부터 조공 지속

武德 7년(624, 진평왕 46) 사신을 보내 김진평에게 柱國을 지수하고 樂浪郡王 신라왕에 책봉

631년 진평왕이 죽었는데, 조서를 내려 진평에게 좌광록대부를 추증하고 博物 2백段 하사

貞觀 17년(643, 선덕여왕12년)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언급하면서 “諸臣을 보내 大國에 보고하니 약간의 군사로나마 구원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상신

태종은 相果玄獎을 고구려에 보내 餽書를 통해 “신라는 나의 명령에 따르는 나라로서 朝獻을 빼놓지 않았소. 만약 다시 공격한다면 너년이 군사를 내어 그때 나라를 칠 것이오”

선덕여왕에 대한 추증과 진덕여왕의 책봉 등

소정방과 김춘추의 연합군의 백제 공격 등 기술

開元16(728, 성덕왕 27)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치고 表文을 올려 신라인에게 중국의 학문과 經敎를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宿衛學生)

성덕왕이 죽었을 때 737년 당의 현종은 사신을 보내면서 송별지를 지었는데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 불리며 자못 학문을 알아서 中부와 유사한 데가 있소. 폐의 학술이 강론에 능하기 때문에 이번의 사신으로 선발하여 보내는 것이오. 그 나라에 가서 經典을 闡揚하여 대국의 유교가 성대함을 알게 하오”

이후 신라의 사신 파견과 조근과 조공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新唐使의 목적은 조공, 사죄, 사은, 청병, 진승보고, 宿衛, 告哀 등)